

Journal of Kijeon Cultural Studies, Vol. 43, No. 2, December 2022
<http://dx.doi.org/10.26426/KCS.2022.43.2.41>

군수산업복합기지로써 인천육군조병창의 특징과 한국전쟁기의 전략적 위상

이장열*

국문 요약

인천육군조병창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1945년 9월 8일 미24사단이 인천을 통해 들어와 인천육군조병창을 가장 우선적으로 접수했다는 사실이나 당시의 군사 작전에 대한 치밀한 접근이 없었다. 한국전쟁시의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연구 역시 일제의 인천육군조병창 부지에 입지하고 있었던 부평의 군수산업복합기지보다는 인천항 월미도 상륙을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다. 다만 군사연구 분야에서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 탈환이 중요한 목표였다는 점이 언급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중요 탈환 목표로서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제강점기의 인천육군조병창 일대가 해방 이후 미군의 접수와 함께 군수산업복합기지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은 이 일대의 유산 가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제의 인천육군조병창 시기부터 미군 기지였던 애스컴시티로 이어지는 통시적 고찰을 통해, 인천육군조병창의 입지 배경과 해방 이후 미군의 조병창 시설 및 부지 접수 과정과 그 의미,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의 탈환이 인천상륙작전의 제1목표였다는 점 등을 밝혔다.

주요어 :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 일본육군조병창, 1950년 9월 8일 인천항, 하지 중장, 미24군단, 맥아더장군, 인천상륙작전, 부평군사기지, 원통이고개, 부평역, 김포비행장

*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Research Fellow of Institute for Kijeon Cultural Studies, Representative of Ascom City Music Art Fair), 77hz@hanmail.net

1. 머리말

일제강점기 일본육군조병창은 한반도에서는 부평 지역에 유일하게 구축됐다. 조병창은 군사 무기를 생산하는 기지다. 부평의 조병창은 군사기지로서 일본제국주의가 태평양전쟁을 위해 한반도 내에서도 군사 물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기지였다. 부평 조병창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군수산업기지로써 적합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부평은 경성(서울)과 인접해 있고, 김포비행장이 인접해 있으며, 철도노선을 갖추고 있고, 군수 물자 수송과 군사 물자 관리 통제가 용이한 장소였다.

해방 뒤에 일본군 무장 해제와 미군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이 인천이다. 미군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후 가장 먼저 부평에 자리한 일본육군조병창의 군사시설과 물자를 확보하고, 주둔한 일본군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임무를 단행하고, 조병창의 원래 기능을 회복해 군사물자(정보)기지로 삼고 1949년까지 주둔했다.

전략적 군수산업복합기지로써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고 있었던 부평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또한 군수산업복합기지로써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었던 조병창(일본육군조병창)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해방 공간에서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에 1945년 9월 8일 인천을 통해서 미24사단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사실에 대한 치밀한 접근도 없었고, 미군이 부평군수복합기지(조병창)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먼저 수행한 작전이었다는 사실도 간과해 왔다. 기존의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이해는 인천항 월미도 상륙을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다. 다만 군사연구 분야에서는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 탈환이 중요한 목표였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요 탈환 목표로서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연구들은 한국전쟁 이후의 한반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로써 성장한 배경과 출발점, 군수산업복합기지로써의 부평 지역의 가치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일제의 인천육군조병창시기부터 미군의 에스컴기지로 이어지는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되, 부평 지역에 조병창이 세워진 배경과 해방 후 미군이 가장 먼저 조병창 시설을 접수했던 과정과 그 의미,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에서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 탈환이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제1목표이었던 사실 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공간, 한국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군수산업복합기지로써 핵심 역할 담당해 온 부평 지역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부평 캠프마켓에 두고 보존이나 철거냐 개발 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최근의 갈등과 논란들이 해소되고,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의 역사적 가치에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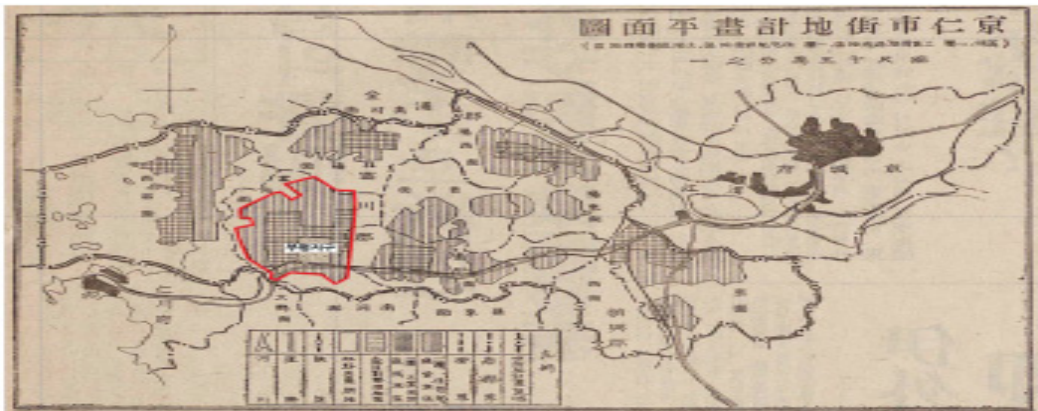
길 기대한다.

2. 군수산업복합기지로서 인천육군조병창의 전략적 위상

1) 일제강점기의 인천육군조병창

1939년부터 건설되어진 무기생산 공장인 인천육군조병창은 1941년 5월 5일 개창되었다. 일본 육군성이 관리하는 조병창이 한반도(외지)의 경우에는 부평에 유일하게 건설되었다. 평양에는 부평 조병창 부설 제조소가 설치되었다. 일본(내지)에서는 6개 조병창을 구축하고, 조선(외지)에 부평에만 유일하게 조병창을 구축했다.¹⁾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핵심 시설로서 무기제조장은 비행기를 통한 공습 공격을 덜 받는 분지에 건설하고, 완벽 관리가 되는 장소이어야 구축이 가능했던 군사기지이다. 일본 육군성은 일본 본토에서 무기를 제조해서 공급하는 것이 대륙침략전쟁을 수행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조선(한반도) 부평에 무기제조장인 조병창을 구축한다. 부평은 지리적으로 분지이면서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군사적으로는 공습에 안전하고, 일본군이 방어할 수 있고, 철도도 갖추어져 있고, 김포비행장, 여의도비행장까지 관할하는 지역이었기에 한반도에 유일하게 가장 보안이 강조되는 무기 제조장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림 1] 경인시가지계획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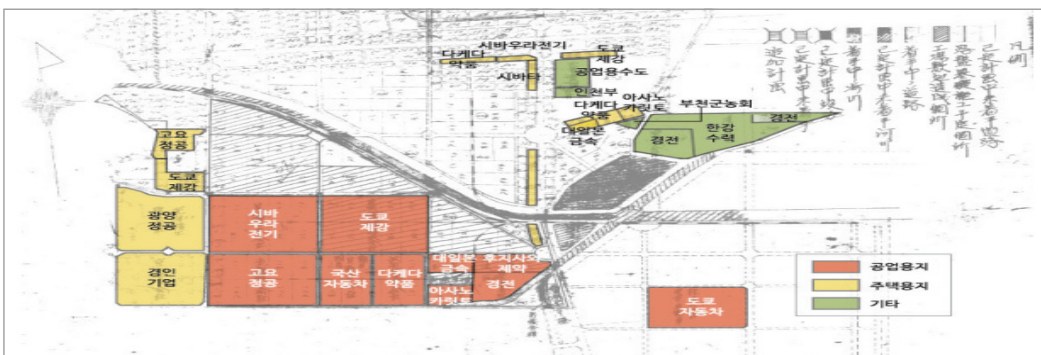
(자료: 매일신보 1939.10.03., 이연경(2022, 171)에서 재인용)

1) 심재욱, 2011, “工具名票』을 통해 본 戰時體制期 舊日本陸軍造兵廠의 조선인 군속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6, 234.

부평은 일제강점기에 일찍이 일본 육군 포대와 기마병이 훈련장으로 사용했던 지역으로, 이들 부대는 당시 경성의 용산에 있었던 일본 육군본부의 관할에 놓여 있었다. 부평 지역은 군사기지로써의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지리적, 공간적, 보급과 관리 면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부평 지역에 조병창이 조성된 것이다. 부평 지역에는 조병창이라는 군사기지 외에 경인시가지계획에 따라 조병창 중심의 군수산업복합기지가 계획, 설계, 추진되었다(이연경, 2022).²⁾ 1940년 1월 19일 <경인시가지계획>의 고시와 함께 약 90만평의 공업용지와 60만평의 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부평지구에서 그 해 중반부터 시행되었다. 부평지구의 사업은 경기도지사가 집행한 사업이었으며, 1940년 9월 9일 지정 고시된 이후 12월 12일부터 이 지구 일부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과 택지 경영의 실시계획이 인가되면서 시행되기 시작됐다.³⁾

1939년 인천 일본육군조병창 제1조소는 부평 산곡리와 대정리 일대에 위치했던 일본군 제20사단 연습장 72만8천여평을 이관받고 그 주변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다. 1938년 8월 9일 고스다(小須田勝造) 육군조병창 장관은 부평연습장의 동측으로 약 24만평, 북측으로 약 15만평, 남측으로 약 4만평을 포함한 산곡리 및 대정리 일대의 약 43만평 토지를 44만원으로 매수 신청하였다. 토지 매수를 마무리한 후 1940년 6월부터는 조병창 건설을 시작하여 1941년 5월 5일 개창식을 가졌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부평 지역에 조성된 일제의 군사기지는 조병창(병원), 공업단지, 주거단지, 상업단지, 기반시설(철도, 비행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수 물품의 생산과 소비, 유통(보급)이 한 도시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서 만든 도시가 부평군사기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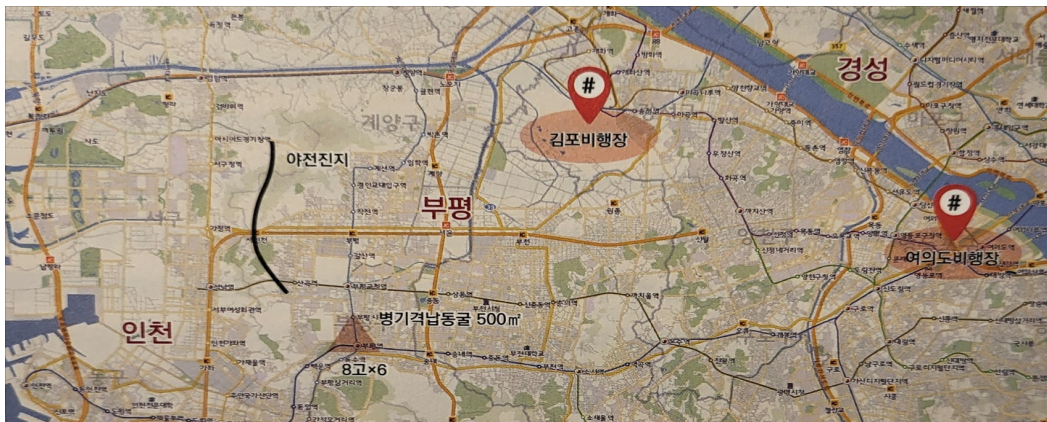
[그림 2] 일제강점기 부평 지역의 공장 분포

(자료: 이연경, 2022)

2) 이연경, 2022, “1940년대 인천 일본육군조병창의 설치와 군수산업도시 부평의 탄생,” 도시연구(역사·사회·문화) 30, 165-208.

3) 이연경, 앞의 논문, 177.

부평군산복합기지의 조병창에는 무기제조공장과 병원시설을 두고 있었고, 공업단지에는 (주)히로나카상공, 도쿄제강, 고요정공, (주)경성공작, 인천제작소/미쓰비시(三菱) 제강, 부평와사공장, 오사카(大阪)섬유공장, 오사카철사공장, 일본고주파중공업, 조선베어링공장, 조선아미노산장유, 디젤자동차공업, 도쿄(東京)자동차공업이 있었다. 주거 단지에는 조선주택의 영단주택, 미쓰비시 줄사택, 철도 사택, 검정 사택이, 기반 시설에는 철도(부평역), 한강수전, 경성전기, 김포비행장, 여의도비행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3] 일본 방위성 소장 부평지하시설

(자료: 부평문화원 박명식 제공)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부평의 인천육군조병창은 한반도 최초로 군사와 산업이 복합된 군수산업복합기지로서 설계 계획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륙 침략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에는 조병창과 각종 민간 군수제작 공장, 주거시설, 상업시설, 철도와 비행장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2) 해방기의 인천육군조병창

해방 직후 미군 제24군단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남한에 남아 있는 일본군의 편제가 해군과 제주도에 있는 병력을 포함해 37만 5천 명이라고 추산했다. 코즈키가 지휘한 제17방면군은 조선의 제주도에 대부분 배치되어 있었고, 전체 병력은 대략 20만 명으로 그 중에서 3만 명은 북위 38도선 이북에 배치되어 있었다.⁴⁾

1945년 9월 8일 미24군단 하지 중장이 인천 월미도에 가장 먼저 점령군 지위를 갖고 상

4) 김윤미, 2021, “1945년 해방공간에서 교차하는 미군과 일본군의 이동,” 지역과 역사 48, 168.

룩한다.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24군단은 곧장 부평 군사기지 조병창 접수 임무를 맡고, 곧바로 경인가도를 거쳐 부평에 들어서 일본육군조병창 접수 작전을 수행한다. 1945년 9월 6일, 오키나와에서 김포공항에 도착한 미군 제24군단 선발부대와 제17방면군,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미군의 진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⁵⁾

제24군단사령관 하지가 9월 8일에 제7사단과 함께 인천에 상륙하자, General Garvin은 총독부 정무총감 엔도류사쿠(遠藤柳作), 제17방면군참모장 이하라준지로(井原潤次郎), 제5항공군사령관 나카니시료스케(中西良介), 진해경비부사령장관 야마구치기사부로(山口儀三郎)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일본측은 다음날인 9월 9일에 예정된 항복 조인식에 대해 설명하고, 제17방면군 참모부장인 스가이다케마로(菅井斌麿)와 제24군단 선발부대가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그리고 9월 9일 오후 4시, 총독부 중앙홀에서 항복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그 후 제17방면군 가운데 경성·인천 부대는 미군의 요구에 의해 스가이를 대장으로 하는 연락 부대와 육군 병원, 창고 경비 등에 필요한 부대만 남기고, 9월 10일 오전 8시까지 사령부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겼다.⁶⁾

코즈키가 대전으로 출발한 후, 스가이가 통솔하는 연락 부대(당초 54명)는 미군의 요구에 따라 9월 14일까지 경성에 남아 미군과 제17방면군 사령부와와의 연락을 담당하였다. 이 부대는 ‘일본군연락부(Liaison Detachment, Japanese Army)’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경성구 중구 본동에 있는 요정 에도가 와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나, 9월 14일부터 용산의 미사카 호텔로 옮겼다.

그리고 10월 중순 스가이 연락부대는 180명이 넘는 대규모 부대로 재정비되었으며, 초기에 제7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점령 행정의 지시만 받던 체계를 제24군단의 G-2, G-3 대표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직접적 명령체계를 만들어 나갔다. 또한 스가이는 제24군단의 회의에 참가하는 등 제24군단의 일원으로서 취급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남한 점령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하지와 코즈키의 연락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연락 부대의 임무는 미군과의 교섭, 일본측 기관들과의 연락 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군인 군속 및 그 가족의 수용과 송환, 일반 일본인의 보호, 일본인 세화회(世話會)를 돕는 일까지 담당하고 있었다.⁷⁾

미24군단이 서울로 진격하기 앞서 조병창을 접수하기 위한 작전을 펼친 이유는, 조병창이 한반도 내 가장 큰 규모의 일본제국 군대의 무기 제조장이었고, 무기와 화약 등의 전쟁 자원이 집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공간에서 부평 지역의 군사기지(조병창)는 미군의

5) 김윤미, 앞의 논문, 172.

6) 유지아, 2007,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8, 151-192.

7) 유지아, 위의 논문, 28.

입장에서 일본의 항복을 한반도 남쪽 내에서 실질적으로 담보해 내는 첫 관문으로서 중요한 전략적으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군사기지였다. 부평 조병창은 전쟁에 사용될 무기를 한반도 내에서 유일하게 만들어내던 거점이었기에, 미군이 일본의 항복 문서에 가장 먼저 접수해서 무장 해제시킬 곳이 바로 부평에 있던 인천육군조병창이었다.

3) 한국전쟁기의 인천육군조병창

인천상륙작전은 남침한 인민군들을 군수 보급로의 차단을 통해 격퇴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은 남침한 인민군의 보급 경로 차단이 주된 목표였던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인천상륙작전을 이해함에 있어 서울 탈환에 중점을 두다보니 이 작전의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다. 인천 상륙작전은 크게 3단계 목표 달성으로 진행되었는데, 기존 연구들은 인천상륙작전 연구에서 2단계 목표 달성에는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 2단계 목표는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 탈환이었다.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 탈환 작전에는 김포비행장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아군 입장에서는 군사보급 요충지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전쟁 승리를 위한 중요한 관건이었다는 점에서, 이 2단계는 인천상륙작전에서 중요한 단계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방 시기에 미군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목표로 1950년 9월 8일에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이 때 미24군단이 인천 월미도를 거쳐, 한반도에서 가장 큰 무기제조 창 부평 조병창을 포함한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를 접수하는 것이 서울 입성과 함께 중요한 목표였다. 그만큼 당시 부평 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군수산업복합기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이 컸고, 이곳에 조병창을 비롯한 일제가 구축한 군사시설, 부평역(철도), 비행장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등 최고의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는데, 한국전쟁시 북한군 인민군 역시 남침 8일만에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를 점령하기에 이른다.

북한 인민군은 1950년 9월 3일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를 점령했다. 1950년 9월 13일과 14일에는 미국 순양함들과 구축함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포격을 실시하자 서울의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9월 14일 새벽 제18보병사단 1개 연대(22연대)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 부대는 서울-인천 가도에서 미 공군의 폭격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인천에 도착하지도 못했다.⁸⁾ 북한군 인천 방어 부대는 북한군 해군 소속 육전대 제226독립연대, 제918포병연대 예하 2개 포대가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자, 서울을 떠나 낙동강 전선으로 이동 중이던 제18사단 다시 서울로 복귀하게 된다. 인천상륙작전 당시에 북한 인민군은 수원 주변에 70연대가 주둔했으며 병력은 대략 2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⁹⁾

8) 김광수, 2006,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6.

북한군은 제107연대와 제18사단 분산 병력을 모아 4개 대대로 재편성한 후 김포-부평 일대에 방어선을 편성하고 있었다.¹⁰⁾

인천상륙작전 첫날인 9월 15일 월미도에서는 상륙과 돌격 작전이 펼쳐졌고 지휘부는 부평 조병창이 있는 군사기지를 우선적으로 탈환하고자 미 제5해병연대가 9월 15일 늦은 저녁에 조병창이 내려다보이는 주변 고지를 확보했다.¹¹⁾

9월 16일 오후 맥아더 장군은 인천으로 상륙하려는 미 재1해병사단장 스미스 장군에게 “김포비행장을 가능한 조기에 탈취하라”고 거듭 당부하였다.¹²⁾ 맥아더 장군 역시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은 부평 군사기지를 조기에 탈환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김포비행장을 포함하고 있는 부평 군사기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에서 우선적 목표가 김포비행장이 포함된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의 조기 확보였다는 점은 여러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16일 미5해병연대와 제1연대는 부평 조병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까지 진출해서 부평 지역의 서방 경인가도를 통제했다. 미 제5해병연대 제2대대는 진지 부근을 통과하려던 북한군 트럭 1대를 노획하고 북한군 장교 1명과 10명의 병사를 생포했다. 제2대대장 로이스 중령은 부평 방면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 걸친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위중대로 하여금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¹³⁾

9월 17일 새벽 경인가도의 오른쪽 186고지(만월산) 상에서 전초부대가 도로상에 북한 T-34 전차 6대와 200여 명의 적이 서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적들은 미 해병대의 진지를 알지 못하였다. 적 전차는 대대 전초진지 앞을 지나 원통이고개를 내려갔다. 대대는 적의 마지막 전차가 90도로 굽는 큰 길을 돌 때 첫 포탄을 발사하여 후미 전차를 명중시켰다. 이에 대대 지원화기들을 일제히 집중시켜 적을 섬멸하였다. 대대는 적을 제압한 후 급속 전진하여 17일 오후 이미 부평을 지나 김포비행장 서쪽 효성동까지 진출하였다.

미 해병 선두대대가 전진하고 있을 때 한국 해병 제3대대는 17일 06:00시경 부평역 서남고지에 진출하여 미 해병대대를 지원하였다. 그 후 국군 대대는 미 해병들이 진출하기에 앞서 07:00시부터 부평 지역 탐색전을 개시하였다. 대대 선두는 부평역 바로 북쪽 언덕(37고지)과 조병창 서쪽 고지(46고지)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았으나, 미 제5해병연대의 지원을 받아 즉시 적을 소탕하였다. 미 해병 대대는 09:00시 인천-서울 가도(경인가도)에서 부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2009, 한국전쟁전투사-인천상륙작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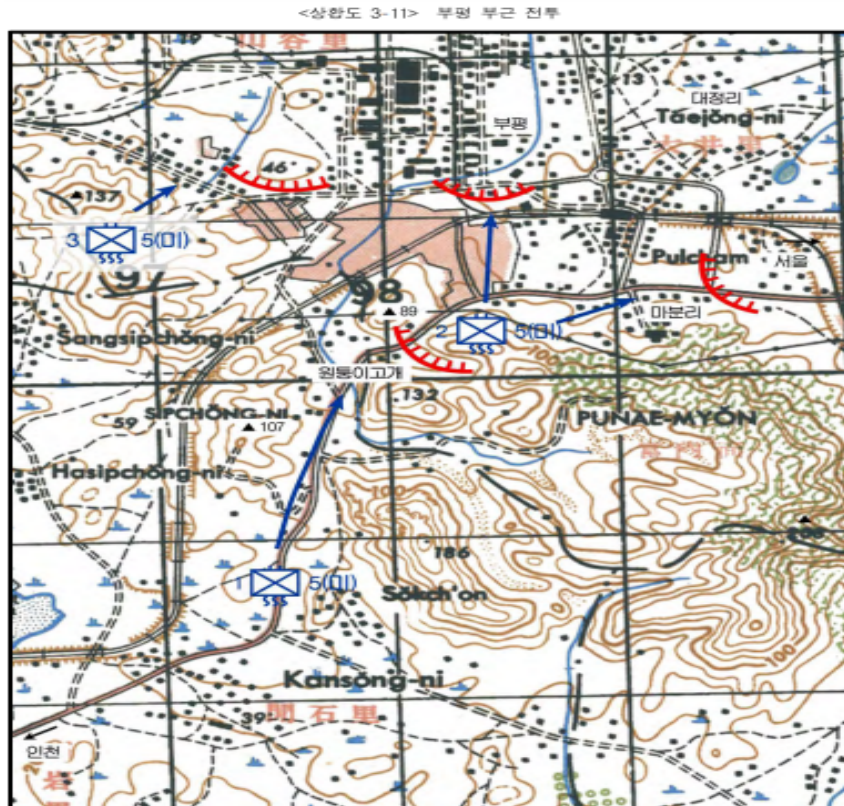
10) 공군본부, 1975, 유엔공군사(1950.06~1952.06), 87.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6.25전쟁사 ⑥: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군사편찬연구소, 142.

12) 공군본부, 1975, 유엔공군사(1950.06~1952.06), 85.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145.

평역에서 좌측 방향 김포로 향하는 도로로 접어들었고, 국군 대대는 오전 중 소탕작전을 전개한 후 오후 늦게 진출을 재개하였다.



[그림 4] 부평 지역 전투 상황

(자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145)

9월 17일 이른 아침 맥아더 장군 일행은 전선을 시찰하기 위해 마운트 매킨리호를 떠나 미 제1해병연대 지휘소까지 방문하였다. 이들은 연대 지휘소로 이동 중 아군 항공기에 의해 파괴된 5대의 북한군 전차를 시찰하였고, 원통이고개에 당도하여 전선을 둘러보았다.¹⁴⁾

인천상륙작전 당시 9월 16일 부평에서 펼쳐진 주요 전투 상황은 「부평전투 전승 기념비-부평지역 주요 전투 상황」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반발 당시 부평지역은 7월 3일 한강도하로 적국에 점령되고 말았다.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146-147.

1950년 9월 16일 연합국 맥아더 장군의 특별 명령에 따라 한국군과 미군해병사령부의 최 우선 과제는 김포비행장의 조기 탈환이었다.

한국군은 미제5해병연대에 배속되어 해병 제3대대 제9중대, 제10중대, 제11중대가 참전하였으며, 미해병대는 제5해병연대 제1대대, 제2대대, 제3대대와 미 제1해병연대 제1대대, 제2대대, 제3대대였다

… (중략) …

9월 16일 인천에 상륙한 후 간석동까지 빠르게 진격하였고 9월 17일 새벽4시에 도화동 속 영지에서 도보행군을 하여 석바위를 지나 오전 6시경 원통이고개 입구 부근에 도착하였다.

이때 주요 공격의 축은 경인국도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며 좌는 부평역과 우는 원통이고개를 넘어 마분리(현 부개동) 일대 그리고 현재 인천가족공원인 부개산 일대와 만월산을 따라 부천 성주산으로 이어지는 공격로 등이었다.

부평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로는 T-134소련제탱크 6대를 앞세운 북한군 200여명이 경인국도를 따라 원통이고개(현 동수역에서 호명사 고개를 넘어 부평삼거리역앞길)로 향하던 중 오전 8시 사전에 포착한 미제5해병대 제1대대와 제2대대 그리고 뒤이어 합류한 한국군 해병대 제10중대가 극력하게 저항하는 적을 고개입구(현 신명요양원 앞길 일대) 길에서 모두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전투 직후에 맥아더 장군이 원통이고개 입구까지 도착하여 현장을 시찰하고 격려하였다.

이를 기세로 미제54해병대는 원통이고개 야산(구 부개산헬기장)으로 진격하여 적 1개중대 규모와 교전하여 적의 주저지선인 208고지(현 부개산 인천가족공원) 북쪽 봉우리를 정오에 확보하였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적들과 하루종일 치열하게 시가전까지 벌리며 마분리 일대(현 부개동지역)를 완전하게 확보함으로써 김포비행장 탈환과 서울 수복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부평역철길을 따라 진격하던 한국해병대 제11중대와 제9중대는 부평역 앞 적37고지 포도밭 언덕(현 텔슨전자 건물 터)에서 은거하고 있는 적들과 교정하였으나 언덕 지형으로 저항이 완강하여 뚫지 못하고, 더욱이 조병창에 위치한 적46고지에서 적의 자동화기 공격으로 협공을 당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던 중, 한국군 후발지원 미 제5해병대 G중대가 137고지(현 선포산)에서 화력 지원으로 조병창에 있는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한국 해병대와 함께 공격에 가담하자 적은 그대로 도주하였고 한국군 해병대 제3대대는 부평 일대 주택가로 숨어든 적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 (하략) …

(자료: 대한민국 군사연구 전시편찬 위원회 인천상륙작전 기록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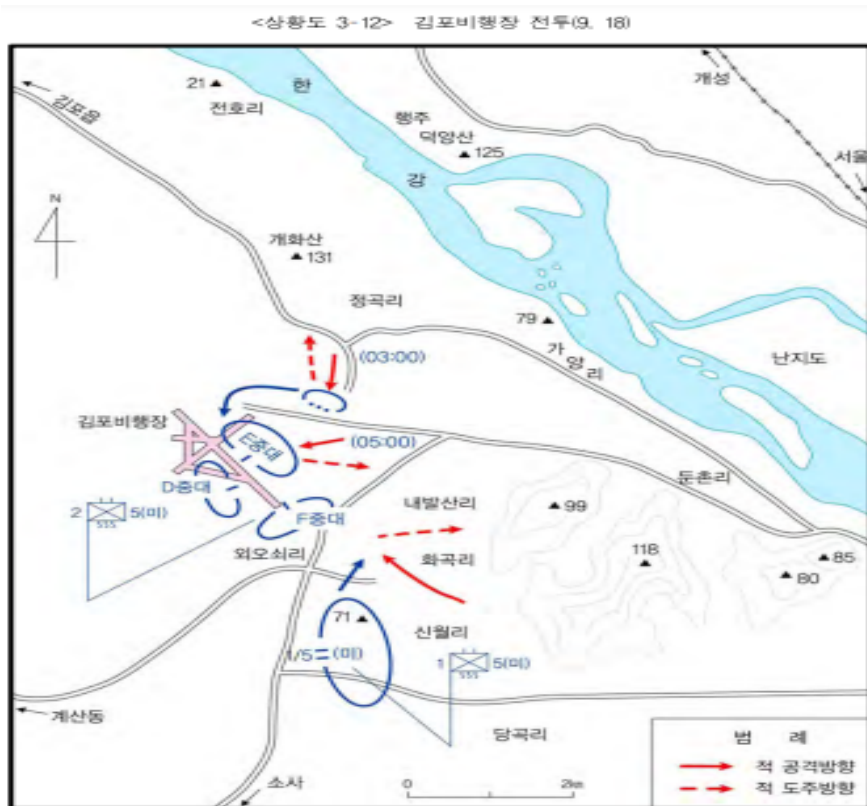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는 1950년 6월 28일 북한 인민군이 서울을 침략하고, 곧바로 한강을 도하해서 1950년 7월 3일에 점령할 정도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일본육군조병창 시설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편한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는 지형적으로 항공 폭격이 쉽지 않은 분지에 자리하고 있는 요새이고, 군사 물자를 원활하게 보급할 수 있는 경부선과 연결된 경인철로 및 김포비행장 등을 관할하는 핵심 군사 요충지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은 서울을 점령한 뒤 곧바로 한강 도하를 펼쳐 진

15) 부평전투 전승 기념비- '부평지역 주요 전투 상황'(2008).

지와 땅굴, 군사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옛 조병창과 김포비행장 및 부평역과 연결되던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를 남침 9일 만에 신속하게 점령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은 월미도 상륙작전과 한강도하작전, 서울 탈환 작전으로 전개되는 작전이었는데, 9월 16일에 펼쳐진 연합군의 부평지역전투작전을 통한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 탈환은 북한 인민군 입장에서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전략적 요새지를 내어주는 전투였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인민군은 전차, 야크 전투기, 중화기를 갖춘 많은 수의 병력을 동원해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를 사수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 탈환 전투에서 연합군이 북한 인민군을 격퇴한 원통이고개 전투 지역은 당일 9월 17일 오후에 맥아더 장군이 격려차 시찰한 정도로 인천상륙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전투였다. 맥아더 장군은 9월 16일 미해병대 사령관에게 김포비행장이 포함된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를 조기에 탈취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고, 인천상륙작전 개시 후 9월 15일 저녁에 부평 조병창에 내려다보이는 고지를 점령하고, 9월 16일 부평군수산업



[그림 5] 김포비행장 전투 상황

(자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148)

복합기지로 진격하는 등 대공세를 펼쳤던 것이다. 특히 9월 17일 낮 맥아더장군은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에 방어하는 북한군 T-전차 5대를 격파한 원통이고개의 작전 지역까지 시찰하였고,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에 포함되어 있는 김포비행장을 조기에 탈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9월 17일 09:00시 미 제5해병연대는 김포비행장 탈환을 위해 진출을 개시했다. 연대는 김포비행장 남쪽 몇 개의 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했다. 김포공항에는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 방어를 위해 북한군 제877항공대 소속 공항경비대대, 제226연대 및 제108연대 병력 약 400여 명이 방어하고 있었다. 아군은 9월 17일 오후 늦게 김포비행장 남단 1km까지 접근하였다. 아군 대대는 북한군의 소화기 공격을 전차포로 제압하고 18:00시 비행장 주활주로의 남단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미 해병은 활주로 남쪽 외곽지대에서 북한군의 사격을 받자, 협동으로 제압했다. 제1대대는 18:00시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쳤다. 이날 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기습을 시도했으나 모두 전멸되었다. 국군 제1대대는 19:00시 저항 없이 목표인 71고지와 주변 일대를 확보했다. 연대 예비인 제3대대는 16:30분 부평역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9월 18일 03:00시 미 제1대대는 비행장 북동 개화산에서 전차 1대를 앞세워 접근하는 중대규모의 적을 격퇴하였다. 날이 샐 무렵 비행장 남동쪽에서 비행장으로 침투하려는 적 200여 명을 격퇴하였고, 적의 집결지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여 적을 섬멸하였다. 결국 아군은 18일 08:00시 김포비행장을 완전 장악했다.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에 속한 김포비행장은 서울 공격을 위한 공군력을 전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의 적을 격퇴하는데 긴요한 기지였다. 9월 18일 10:00시 김포비행장에는 미 해병 제6비행관측대대의 헬리콥터 1대가 6월 이후 처음으로 착륙하였다. 여기에 태평양함대 해병대 사령관 세퍼드 중장이 탑승하고 있었다. 14:09분에는 일본에 있던 미 해병 제33비행단 예하부대가 도착하였고, 다음날 9월 19일에는 C-54 수송기를 비롯한 항공기들이 속속 도착하였다. 1950년 9월 2일부터는 거의 모든 항공기가 김포비행장에서 출격할 수 있게 되었다.¹⁶⁾

이와 같이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를 탈환하면서 서울도하 작전에 투입될 전투 장비와 병력을 인천역에서 부평역 및 부천까지 이어지는 1호선 철도와 김포비행장을 통해 한강 인근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의 탈환은 인천상륙작전 개시 5일 만에 9월 20일부터 한강 도하 작전을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든 결정적 작전이었던 것이다.

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6.25전쟁사 ⑥: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148.

3.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인천육군조병창을 거쳐 해방 공간 및 한국전쟁기의 인천상륙작전에 이르기까지 부평 지역 군수산업지구의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부평 지역의 군수산업지구에 대해서는 일제의 육군조병창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정도였고, 한국전쟁기의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월미도 상륙이나 서울 탈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로서 이 지역의 가치와 의미에 충분히 다가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연구자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관련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일제의 조병창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과 공장, 한국전쟁기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주요 전투와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일제강점기 부평 지역에는 한반도 최초로 군수산업복합기지가 들어섰다. 해방 공간에서도 옛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는 미군이 일본의 항복을 실질적으로 한반도 남쪽에서 보장받는 전략 요충지로서 우선적으로 접수했던 공간이었으며, 미군 역시 이곳을 군수산업복합기지로 재활용하였다. 한국전쟁기의 인천상륙작전에서도 김포비행장을 포함한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를 최우선적으로 탈환하는 것이 제1목표였다. 유엔군의 탈환 작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 인민군이 거세게 저항했다는 사실은 부평지구의 주요 전투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부평 지역에 조성된 한반도 최초의 군수산업지역은 대륙 침략의 전초 기지였고, 해방 공간에서는 미군이 일본군의 완전 무장 해제를 위한 핵심지였다. 당시 미군은 일본의 항복으로 기능이 중지된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를 장악하면서 조병창으로서의 기능을 이어갔다. 1950년 9월 15일 개시된 인천상륙작전에서는 북한 인민군이 7월 3일부터 점령하고 있던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의 김포비행장 등을 최우선하여 조기 탈환하는 것이 제1목표로 설정되었고, 북한 인민군은 부평군수산업복합기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전차, 전투기, 최대 병력 등을 총동원하여 전투를 벌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공간, 한국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군수산업복합기지로서 핵심 역할 담당해 온 부평 지역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부평 캠프마켓에 남겨진 옛 조병창의 일부 시설을 놓고 보존과 철거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들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평 군수산업복합기지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공군본부, 1975, 유엔공군사(1950.06~1952.06)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上).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6.25전쟁사 ⑥: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권선정, 2018, “부평(富平) 지명의 역사지리적 변천,” 기전문화연구 39, 15-38.
 김광수, 2008,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광수, 2010,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군사 59, 69-120.
 김윤미, 2021, “1945년 해방공간에서 교차하는 미군과 일본군의 이동,” 지역과 역사 48, 311-338.
 박명림, 2002, 한국 1950-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심재욱, 2011, 『『工具名票』을 통해 본 戰時體制期 舊日本陸軍造兵廠의 조선인 군속 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6, 225-270.
 유지아, 2007,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8, 151-192.
 이연경, 2022, “1940년대 인천 일본육군조병창의 설치와 군수산업도시 부평의 탄생,” 도시연구(역사·사회·문화) 30, 165-208.
 전중환, 2016, “지역역사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역사부평’의 문화경관과 지역 정체성,” 기전문화연구 37, 21-40.
 조건, 2021, “일제 말기 仁川陸軍造兵廠의 地下化와 강제동원 피해,” 한국근현대사연구 98, 171-214.
 주영복, 1990,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고려원.
 중앙일보사 편, 1977, 민족의 증언 2, 을유문화사.

교신 : 이장열, (21419)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118번길 14-7, 2층.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전자메일: 77hz@hanmail.net 전화: 010-5798-6577

Correspondence : Lee, Jang Ryeol, Ascom City Music Art Fair, 2nd floor, 14-7, Gyeongin-ro
 1118beon-gil, Bupyeong-gu, Incheon 21419, Republic of Korea
 e-mail: 77hz@hanmail.net, phone: +82-10-5798-6577

투고일 2022. 12. 13.

수정일 2022. 12. 25.

채택일 2022. 12. 26.

Characteristics of the Incheon Army Arsenal as a Munitions-Industrial Complex and Its Strategic Status During the Korean War

Lee, Jang Ryeol

In previous studies on the Incheon Army Arsenal, there was no meticulous approach to the military operation at the time, although the fact that the US 24th Division entered through Incheon on September 8, 1945 and took over the Incheon Army Arsenal with the highest priority. Research on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during the Korean War has also been approached with a focus on the landing at Wolmido, Incheon Port, rather than the Bupyeong Munitions-Industrial Complex, which was located on the site of the Incheon Army Arsenal of the Japanese Colonialism. However, although it was mentioned that the recapture of the Bupyeong munitions-industrial complex was an important goal in the field of military research, it is true that the Bupyeong munitions-industrial complex was not given much importance as an important recapture goal. The fact that the area of the Incheon Army Arsenal under the Japanese colonialism grew into a munitions-industrial complex with the acquisition of the US Army after liberation is very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heritage value of this area. This study, through a diachronic examination from the time of the Incheon Army Arsenal under Japanese rule to Ascom City, the US military base, the background of the location of the Incheon Army Arsenal, the US military arsenal facilities and site acceptance process and meaning after liberation, and Bupyeong during the Korean War It was revealed that recapturing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was the first goal of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Key Words : Bupyeong Military Fisheries Complex Base, Incheon Army Arsenal, September 8, 1950 Incheon Port, Lieutenant General Ha Ji, US 24th Corps, General MacArthur, Incheon Landing Operation, Bupyeong Military Base, Wontong Pass, Bupyeong Station, Gimpo Airfield